

도민들 “코로나 시국에 관광객 와도 걱정”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관광객 부정인식 높아져 제주관광공사 ‘도민 관광인식 변화 조사’ 결과

제주도민은 코로나19 여파로 입도 관광객이 줄어 생활 환경 불편은 다소 개선됐지만, 감염 불안 등의 이유로 관광객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4일 코로나19 이후 제주도민의 관광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20 제주도 도민의 관광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년 이상 거주한 도

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관광이 제주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2018년과 2020년의 도민 인식 변화 등이 중점 비교 분석됐다. 관광 인식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낮아질수록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도민들은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 생활환경의 부정요소에 대한 물음에 2.54점을 주면서 2018년 2.25점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불편함, 치안불안, 사생활 침해 등 관광객과 관련한 부정요소는 2018년 3.46점에서 2020년 2.63점으로 긍정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추가 관광개발(관광객 방문 환영, 관광시설 추가 개발)에 대한 인식은 2018년(2.87)보다 2020년(3.31)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관광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응답자별 인식 차이를 비교하면, 코로나19가 관광에 미친 영향(지역안전, 생활환경 등)에 대해 일반도민(2.67)이 관광

관계자(2.94)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선영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민은 관광객에 의한 감염확산 우려와 동시에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을 경험하면서 관광의 영향력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느끼고 있음에도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온 만큼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가혹행위 해병 병장 법정서 몸으로 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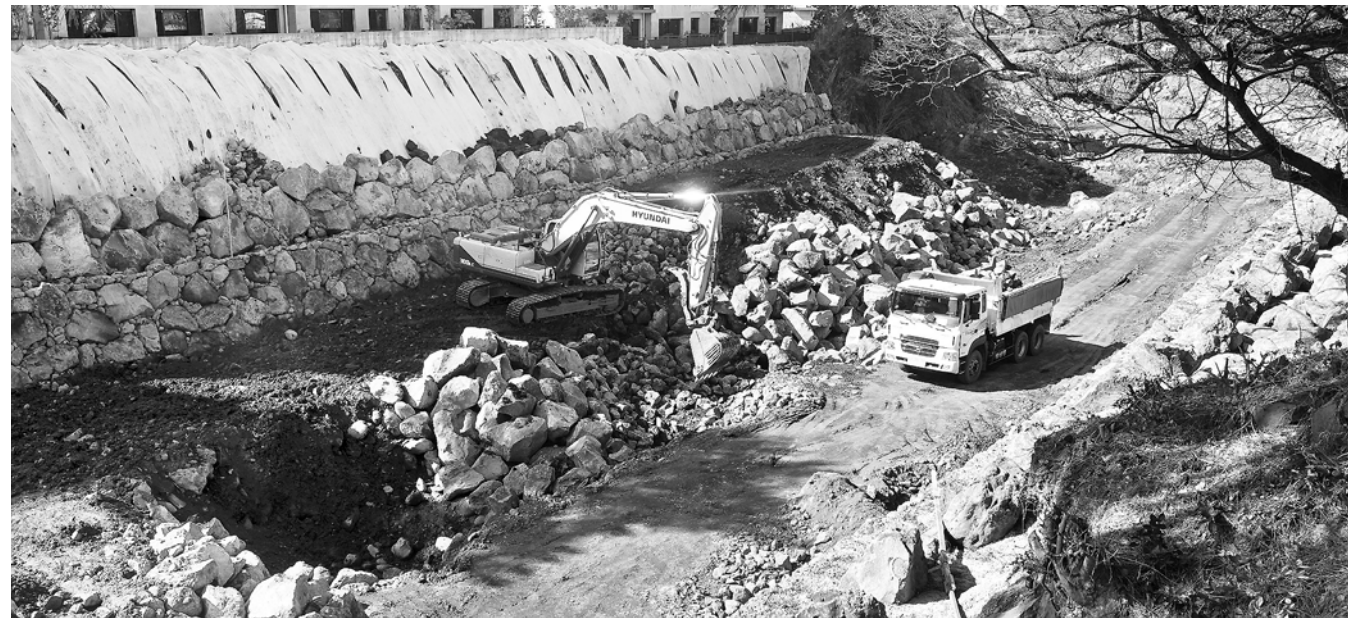
4일 제주지법서 첫 재판 중 후임에 행한 가혹행위 시연

“메뚜기 자세가 뭐예요, 한 번 보여 줄 수 있어요?”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재판이 진행된 201호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메뚜기 자세’를 하고 있었다. 메뚜기 자세는 머리·양쪽 팔꿈치를 땅에 댄 상태로 다리는 책상 위로 올리는 자세였다. 이날 피고인 A(21)씨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해병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메뚜기 자세를

시키거나, 몸을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한 뒤 신체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2월 후임병 복부 위에 올라가 가슴을 찌르는 등 총 5회에 걸쳐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후임병은 11명에 이른다. 공소사실을 들은 장찬수 부장판사는 메뚜기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모르겠다며 A씨에게 보여 줄 수 있다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격을 나와 법정 한 가운데서 메뚜기 자세를 펼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11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재판 기일을 3월 11일로 잡았다. 송은범기자

경운기·차 사고... 1명 중상

승용차와 경운기가 충돌해 경운기 운전자 A(78)씨가 중상을 입었다. 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53분쯤 제주시 한경면 신장리 하나로마트 인근 도로에서 포르테승용차와 경운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 운전자 B(25)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4일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인근 한천변에서 홍수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하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민성기자

세 자매 정서 학대 40대 부부 집행유예

세 자매를 학대한 부모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편인 B(4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 부부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내려졌다. 13세 미만의 세자매를 키우고 있는 이들은 술에 취한 채 딸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들은 딸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한천 정비사업 놓고 하천파괴 논란

환경운동연합 4일 재검토 촉구 성명서 발표 제주시 “하천바닥 최대한 보호하며 공사 중”

제주시가 홍수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천(오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두고 하천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오라동주민센터 일대 한천변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석축 쌓기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하천 바닥은 자연석이 보이지 않은 채 아스팔트 도로처럼 평탄화돼 하천 원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한천 정비사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되는 하천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오라지구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하천 양쪽에 석축 쌓는 공사를 진행하며 하천 고유 모습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 바닥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사를 하려면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옹벽·석축 건설은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키고 세굴(물흐름이나 파랑에 의해 수로 바닥이 침식되는 현상) 시 급격히

붕괴하는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한다”며 “수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제주는 물의 고조차가 심하다. 하천면적도 육지에 비해 좁은 편이라 물살이 빠를 수밖에 없다”며 “모래 옹벽처럼 석축을 쌓으면 면적을 넓힐 수 있어 유속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천 바닥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기존 하천 돌 위에 흙을 덮어 도로를 만들어 강비를 이동시키고 있다”며 “공사가 완료되면 돌 위에 덮인 흙은 절토해 이전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제주경찰 여성·청소년 기능 대폭 강화 경찰서가 맡던 아동학대 사건 ‘청’이 전담

‘조직·사무분장 규칙’ 개정

제주경찰이 여성·청소년 관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제주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청 관련 직점수사 범위 확대, 경찰관 직무범죄 수사 신설, 해양경비단 교육계 폐지 등이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산하에 있는 ‘여성수사계’를 ‘여청범죄 수사지도계’, ‘여청범죄 수사대’로 확대했다. 기존 ‘13세 미만 성폭력 및 장기실종 사건 등 주요 사건’이던 수사 범위를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으로까지 넓히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13세 미

만 아동학대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맡아 왔다. 이와 함께 인력도 기존 여성수사계 9명에서 여청 수사지도계 4명, 여청범죄 수사대 11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동부·서부서 여성수사팀 소속된 경찰관 6명이 제주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와 함께 경찰관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부서에도 ‘수사권’이 부여된다. 감찰 이후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기던 관행을 버리고, 감찰 수사팀을 신설해 감찰부터 수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의경 폐지에 발 맞춰 해양경비단 교육계를 폐지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4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시키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경찰, 아동학대 의심 보호자 1명 입건

생후 7개월 남자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경찰이 부모 중 한 명을 입건했다. 제주도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아이가 배탈이 났다며 거주지 인근 의원을 찾았다. 다음날에는 도내 종합병원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간수치가 정상수치보다 2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면서 구급차를 이용해 제주대학교병원 소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어 같은달 29일 의료진이 남아의 갈비뼈와 장기 손상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경찰은 의사와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결과 ‘외력’에 의해 다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 부부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출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